

문화 디지털혁신으로 새로운 가치 창조하는 K-컬처 산업 육성

- '2023년 문화 디지털혁신 시행계획' 확정, 총 118개 사업 추진, 3,277억 원 투입
- K-컬처 산업과 디지털 기술의 성공적인 결합을 위해 ▲ 디지털 융·복합 인재 2만 1천명 양성, ▲ 문화 디지털 원천자원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과 빅데이터 개방, ▲ 콘텐츠 개발과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문화기술 연구개발 확대 등 추진

문화체육관광부(장관 박보균, 이하 문체부)는 지난 4월 발표한 '제1차 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 2025'의 연도별 이행계획인 '2023년 문화 디지털 혁신 시행계획'을 확정했다.

'문화 디지털혁신 시행계획'은 '대한민국 디지털 전략('22년 9월)', '디지털 플랫폼정부 실현계획('23년 4월)' 등 정부의 디지털 전략을 뒷받침하고,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K-컬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. 전체과제의 80% 이상이 국가전략과제에도 포함되어있다.

올해 시행계획을 통해 총 3,277억 원이 투입되며, 디지털 기반의 K-컬처 산업을 육성하고('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K-컬처 산업'), 국민에게 새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하며('새로운 경험을 향유하는 디지털 K-컬처'),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행정을 구현('새로운 행정을 구현하는 조직문화') 한다는 세 가지 추진전략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. 이중 디지털 혁신으로 K-컬처 산업의 발전을 꾀하는 전략을 먼저 소개한다.

* 추진전략 '새로운 경험을 향유하는 디지털 K-컬처', '새로운 행정을 구현하는 조직문화'에 대해서는 후속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 예정

디지털 혁신으로 K-컬처 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, 2,510억 원 투입

K-컬처 산업은 디지털과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,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. 디지털 혁신을 통한 K-컬처 산업의 발전을 위해 2,510억 원 규모의 49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. 전통적 장르와 매체에서 벗어나

장르 융합적 인재와 상품, 서비스를 육성하고 민간분야 창작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문화자원의 개방을 확대한다. 또한 초거대 인공지능, 디지털 플랫폼 등 핵심 분야 선도기술을 개발하는 투자도 확대한다.

중점과제 ① 디지털 신기술 기반 문화산업 육성

먼저 우리 문화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K-컬처 다변화를 위한 융·복합 인재를 양성하고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상품과 서비스, 유통 등 새로운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한다.

▲ 신기술콘텐츠 융·복합아카데미, 미래형 관광 인재 육성 등 디지털 융·복합 인재를 발굴·양성(2만 1천 명)하고, ▲ 관광기업의 혁신바우처, 신기술 융·복합 콘텐츠 기업 지원 등 문화 관련 기업과 단체의 디지털 전환과 산업 성장을 지원한다. ▲ 콘텐츠 수출 통합지원(WELCON), 출판수출통합플랫폼(K-BOOK), 한국문학 유통플랫폼(KLWAVE) 등 플랫폼을 통해 기업과 예술인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중점과제 ② 창·제작 활성화를 위한 문화자원 개방

국민들과 문화산업 관련 기업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화자원을 선제적으로 개방해 자유로운 창·제작을 지원하고 다양한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융·복합 서비스 창출을 유도한다.

▲ 문화 분야 디지털 원천자원 개방을 위한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, ▲ 디지털 원천 문화자원(5만 건)과 인공지능에 활용할 학습데이터*의 개방을 지속 확대한다. ▲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 분야 빅데이터도 적극 개방해 다양한 신기술 서비스 창출을 지원한다.

* (한국어 말뭉치) '22년 누적 37종 22억 어절 구축, '23년 25종 등 '27년까지 130종 구축

중점과제 ③ 문화기술 연구개발(R&D) 확대

코로나19 이후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콘텐츠 플랫폼 분야에 대한 기술

개발 투자를 강화하고, 저작권 침해 방지와 보호 기술개발로 K-콘텐츠 유통 생태계를 확립해 안정적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.

▲ 공연 콘텐츠를 보호하고 정산할 수 있는 안정적인 가상공연 플랫폼 구축 기술을 비롯해 ▲ 청각장애인 대상 음악·댄스 실감 가상화 기술 등 문화 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를 돕는 기술을 개발한다. ▲ 문화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▲ 메타버스 등 새로운 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도 뒷받침한다.

‘문화 디지털혁신 통합지원센터’를 통해 관련 업무 체계적 지원,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(9~12월), 포럼(12월) 개최

문체부는 2023년을 문화 디지털혁신 원년으로 삼고 이번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에 ‘문화 디지털혁신 통합지원센터’를 구축했다. 앞으로 센터를 통해 신기술 컨설팅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등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.

문화 디지털혁신 분야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행사도 추진한다. ‘문화 디지털혁신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(접수 9월, 시상 12월)’과 ‘제2회 문화 디지털혁신 포럼(12월)’을 통해 문화 분야의 디지털 혁신의 필요성과 성과를 널리 홍보해나갈 계획이다.

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“디지털 기반의 문화 정책으로 K-컬처 산업이 전 세계에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다 짜임새 있게 뒷받침 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따로 붙임 2023년 문화 디지털혁신 시행계획

담당 부서	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	책임자	과장	백정기 (044-203-2261)
		담당자	사무관	박홍규 (044-203-2263)

국민과 함께하는
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

대한민국
지적브리핑

